

## 리움미술관 영상프로젝트 이강소 인터뷰

2021.1

### Q.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글쎄요. 제가 작업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지난 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세계에 특히 현대 물리학이 아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이나 모든 문화생활은 과학의 발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철학이나 음악, 혹은 디자인이나 현대미술이 급속하게 예술에 대한 사고가 변혁되고 있어요.

대개 지난 세기말, 18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서 서구의 식민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한국, 일본, 인도 등 동쪽 나라들이 서구화되었어요. 식민지화로 인해 지난 세기에 걸쳐서, 이 지역(동아시아) 사람들은 모두가 서구식 근대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서구가 바라보는 시각과 동일하게 세계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 특징은 고대 희랍시대부터, 특히 플라톤 아카데미 정문에 쓰여 있듯이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 라는 문구처럼 유클리드 기하학, 여러 가지 수학에 관한 것, 우주를 원형으로 본 것처럼 세계를 상당히 기하학적으로 봤다는 것이죠. 뉴턴(Isaac Newton, 1642 ~ 1727)이나 데카르트(Descartes René, 1596 ~ 1650)의 근대과학도 세계를 시간과 공간으로 나누어서 봤어요. 실제로 20세기 초반에 아인슈타인(A. Einstein, 1879 ~ 1955)이 증명했듯이 시간과 공간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합쳐져 있다는 것이죠. 근대에 이르기까지 서구 문명이 세계를 보던 시각은 전부 틀렸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지난 세기부터 지금까지 우주론이나, 양자역학 등이 굉장히 연구가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바라본 시각이 환영이고, 환상이다. 우리가 현재 보는 것이 기하학적인 혹은 개념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라는 것이죠. 지도가 현실이 아니잖아요? 세계를 지도화해서 생각하고 보고, 파악하는 것.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20세기에 들어와서 사고를 전환시켜야 하는데요. 우리 인류사에 있어서 새로운 물리학의 새로운 시각과 비등한 것이 있었나? 라고하면 신기하게도 인도의 힌두교나 불교, 동아시아로 전파된 불교, 그리고 도교, 유교 이런 종교 혹은 생활에서 사람들이 세계를 봐왔던 시각은 (근대)서구 시각과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현대 우주론처럼 끊임없이 우주가 유동하고, 변화하는 관점에서 세계를 사건으로 본다 혹은 직관으로 본다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시공간이 합일되는 것을 보통 인류가 지각할 수 있느냐? 하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로 힌두교의 사상이나, 도교나 불교의 선사(禪師)들이 세계를 직관하던 방식은 근대 서구시각보다는 훨씬 더 세계를 파악하는 데 현대물리학과 상당히 근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를 파악하는 방법의 움직임이 이런 아시아가 전통적으로 세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습관이 되어있어서 지금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서 기억하고, 기억의 조각을 간직하다가 잊어버리

고 망각하는데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미망(彌望)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방식, 미술의 형식은 근대적인 서구의 방식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형식으로 작업의 방식을 다시 제 나름대로 실현을 해보겠다(고 생각했어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서 작업 방식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연구해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제 작업을 보는 관객도 예술가의 주관적인 표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작품 자체에서 관객이 순간 순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작업의 형식(을 추구해요.) 제 작업을 통해서 직관을 느낄 수 있게(되길 바랍니다.)

제 작업이 시간을 두고 하는게 아니라 모든 이념과 개념을 잊어버린 채 캔버스 위에 몰입해서, 물감과 캔버스, 습기 등 모든 환경이 일체화된 가운데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형식이 조금 더 직관에 가까운 형식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작업을 관객이 대할 때 관객 또한 (직관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동아시아 미술용어 중에 '기운생동(氣韻生動)' 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각이나 캔버스가 작가의 아주 얇은 먹으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작가의 기운이 캔버스(재료)를 통해서 관객에게 직접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주, 세계, 좁은 실리(實理)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만물이 교류하는 상황에서 작업의 감상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만물의 교류, 기운생동을 담기 위한)작업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중입니다.

이것은 드로잉 작업이라고 할까요? 먹으로 연습삼아 해본 것인데요. 제가 과거에 수십년 동안 커다란 캔버스에 그냥 순간적으로 일필휘지(一筆揮之)로 작업을 했었어요. 커다란 화폭에서 정신이 흐트러지면 금방 실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난점이 있어서, 조그마한 종이에 드로잉을 연습삼아 해보고 있어요. 연습삼아 할 때 예상하지 못한 붓의 움직임이 발견되더라고요. 캔버스에 무턱대고 실수하지 않고, 연습을 해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행위들이 다양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러한 행위들을 참고 삼아 찾아보곤 합니다. 진작 했더라면 훨씬 더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열심히 드로잉 작업을 하고 있어요.

뒤에 보이는 작업은 1000호 정도 됩니다. 사이즈가 꽤 커요. 캔버스를 눕혀 놓고, 물감을 붓에 찍어서 캔버스를 돌아다니면서 필획을 그은 거예요. 저 작품은 꾸준하게 순간에 다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주 기분이 밀착이 되었을 때,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작가의 다른 의도보다는 훨씬 더 근저에 청량한, 맑은 영역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면서 그려본 작품입니다.